

BIBLICAL PEOPLE AND IRAQ

1. The Garden of Eden was in Iraq.
2. Mesopotamia which is now Iraq was the cradle of civilization.
3. Noah built the ark in Iraq.
4. The Tower of Babel was in Iraq.
5. Abraham was from Ur, which is in Southern Iraq.
6. Issac's wife Rebekah is from Nahor which is in Iraq.
7. Jacob met Rachel in Iraq.
8. Jonah preached in Nineveh which is in Iraq.
9. Assyria (in Iraq) conquered the ten tribes of Israel.
10. Amos cried out in Iraq.
11. Babylon which is in Iraq destroyed Jerusalem.
12. Daniel was in the lion's den in Iraq.
13. The 3 Hebrew children were in the fire in Iraq.
14. Belshazzar, the King of Babylon saw the "writing on the wall" in Iraq.

BABYLONIAN EXILE (Spong: Why Christianity must change or die: P. 25-28)

The Babylonian army was immense, both in numbers and power. Jehoiachin, the King of Judah, finally decided to seek a negotiated settlement. He offered to surrender in the hope of gaining favorable terms. But this was a cruel enemy, and the price of surrender turned out to be the king's own capture and removal to Babylon along with his princes, his mighty men of valor, and substantial number of the craftsmen and artisans of Judah. The Babylonians would leave no one in the land except, as the Bible said, "the poor people."

Spong 이란 학자의 기록을 보면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0 년을 견뎌오다가 588 년에 바벨론정복군에 항거하고 독립을 선언하니 바벨로니아 군대가 다시치고 들어와 유다를 정복하니 유대인들은 버틸만큼 버티다가 결국 586 년에 끝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진 유다의 군대가 밤을기해 도망을 갔는데 뒤쫓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 패배당하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된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저항없는 예루살렘에 바벨로니아 군대는 밀려들어와 소수의 남은 유다 저항군들을 살해하고 예루살렘도성을 파괴하고 집들은 다 불지르고, 무엇보다 끔찍했던일은 하나님의 거처인 솔로몬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벨론군대는 다음으로 바벨론통치하에서 가신왕이었던 스테기아왕의 왕자들을 왕의 눈앞에서 살해하고 왕의 두 눈을 뽑고, 남은 예루살렘과 유다 시민들은 제 2 차 즉 최종 추방을 시킨것입니다. 두번잡혀간 포로들은 조국을 다시 볼수도 없고, 거룩한도성에서 예배도 다시 드릴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포로생활이 70 년동안이었기때문입니다 (왕하 24: 25) (Spong: 26).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계시고 거하시는 땅의 주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시는 황금도시일뿐만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믿어 이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던것입니다. 지난 4 백년간 예루살렘이 외세에게 점령 당하지아니했던

이유는 우연도 자연적인 방어도 아니고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믿었던것입니다. (Spong:24).

이들이 믿었던 모든 것,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것,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주던 모든 것이 사라진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국가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성인 예루살렘도 돌과 잿더미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택이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직, 성스러운 풍습, 신조문서도, 유대인들에게 생의 의미와 질서를 주었던 모든 사회의 구조 모두가 없어졌던것입니다. 외국인들을 수입해다가 자기들땅에 심으려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유대민족을 몽땅 바벨로니아로 옮겨심을 계획이였습니다.

이들 바벨로니아 이방인들은 야외하나님도 Torah -구약성경 도 모르는자들이였습니다. 이땅은 더 이상 유대인의 땅 이라 불리우지도 않을것이고 아부라함과, 이삭고, 야곱과, 유다와 요셉의 자손들은 다시한번 이땅위에서 유리하는 이방인, 무숙자로 전락하고 만것입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소망도 없이, 포로로 생포되어갔는데 바벨로니아 군인들이 패배한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우리들을위해 시온의 노래를 불러 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울 수는 있었어도, 기억할 수는 있었어도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다고 시편 137:1-4 에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래를 불러드리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때문이였습니다. (Spong: 27).

한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옆에서서 적을 대적하여 함께 싸워주셨다고 믿었는데, 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벌하실지는 몰라도 완전히 멸하기까지는 안하실 것으로 믿었는데, 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한때는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는데 이도 더 이상 믿을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일러주셨다고 믿었는데 이도 더 이상 믿을수 없게되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유다를 다스린다고 믿었는데 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때는 믿었는데 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한때 유대인들은 목적지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한때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봐주실것이라고 믿었는데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왜국 이방나라에서 혹독한 포로생활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잃었고 모든 의미를 잃었으니 주님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었다고 믿은 것이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믿었는데 이하나님은 하던지 사망했 했나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포로생활의 증상이라고 Spong 교수는 말합니다. (Spong: 29).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만 포고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포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입니까?

.....

g. 바벨론 포로생활은 노숙생활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로서 그 당시 근동에서 학문과 과학이 발달하여 심심치 않게 근동의 정치, 문화, 무역 등을 장악했던 무서운 고대제국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는데 욕심이 많아 유다를 여러 번 침범하다가 드디어 주전 587 년에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 번째로 수천의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납치해가기에 이르렀다(렘 52:28 - 30). 바벨론 포로생활은, 야웨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로 사용하셔서 행한 것으로 신명기 전통은 이해한다. 렘 25:9 과 27:6 에서 "야웨는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부르신다"와 사 47:6 에서 "야웨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여 곤욕을 치르게 하셨다"는 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유다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파괴될 때 가난한 농부, 노동자들만 뒤에 남겨둔 채 2 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 가운데에는 통치자 계급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류계급과 왕족들이 많이 끼어있었다. 이렇게 유다는 끝장이 난다(왕하 24, 25).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들의 존재가치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 하나님의 도성이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인 성전도 찢터미가 되고 제사장직과 그들의 성스러운 풍습, 교리문서, 사회구조 등 모두가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70 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exile)은 강제로 적에게 잡혀간 무조국, 무주택, 무자유의 잃어버린 생이었다. 하나님의 성전과 조국을 한꺼번에 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버림받은 것 같이 절망적이고 조국으로 돌아올 기약을 전혀 모르는 버려진 생이었다. 한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서서 원수들과 싸워주셨다고 믿었는데, 한때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믿었는데,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다스리신다고 믿었는데,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는데,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신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옛날에 자신들이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육적인 노숙 위에 영적인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About ten years later, in 588 B.C.E., tiring of this vassal status, the people of Judah rebelled against their Babylonian conquerors and declared their independence. The Babylonian army responded by moving down once more into siege positions. The Jews resisted as long as they could but finally in 586 B.C.E. THE end came. With the morale of the defenders at rock bottom, the desperate Jewish army tried to escape from the city by night in search of supplies. However, they were spotted, pursued, defeated, and captured by the Babylonians. Then without opposition, the enemy soldiers poured into Jerusalem. The few remaining Jewish resisters were massacred. The buildings of the city were razed to the ground, the houses were burned, and, most appalling of all to the Jews, the Temple of Solomon, God's dwelling place, was destroyed. The Babylonians next executed the sons of King Zedekiah (a vassal king under Babylon) in his sight and then proceeded to gouge out the king's eyes. The remaining living citizens of Jerusalem and Judea were ordered to prepare for the long march into Babylon. It was the second and final deportation. None of the Jews from either deportation would ever see their homeland again, nor would they ever worship in their holy city again. The Jewish nation had come to and end (2King 24, 25).

Everything these people valued, everything that defined them to themselves, was gone. Their nation was no more. Jerusalem, God's special city, was a pile of stones. The Temple, God's earthly dwelling place, was laid waste. The priesthood, their sacred customs, their creedal statements, the social fabric that gave order to Jewish life – all were lost.

Now the Jewish population was to be totally transported to Babylon, and, according to the pacification program of the Babylonians, foreigners would be imported to resettle their land. These foreigners knew neither Yahweh nor the Torah. This land would no longer be known as "the land of the Jews." These descendants of Abraham, Isaac, Jacob, Judah, and Joseph were once again to be aliens, homeless wanderers on the face of the earth.

In the despair of meaninglessness, these Jewish people were forced to leave everything they knew and everything they valued to begin their journey into a Babylonian captivity. There was no hope of return. They were in exile.

On one of these journeys into the exile, the book of Psalms recounted how the Babylonian soldiers taunted the defeated Jews. "Sing us one the songs of Zion," their conqueror urged. But Jews could not sing. They could weep and they could remember, but they could not sing. The God to whom their songs were directed was in Jerusalem.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foreign land?" was their response (Ps. 137: 1-4).